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제622호

지면안내

03

사회
모두의 노동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04

문화
불교 좋아하는 사람, 부처한즈업

05

사람사
작품과 나 사이, 예술로 삶을 반추하다

08

기획
청년의 식사를 부탁해

본교 계약학과 학생, 폭언·임금 체불 등 피해 제기

본교 계약학과인 뷰티메니지먼트학과(이하 뷰티과) 재학생이 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학생들은 산업체 재직 당시 ▲시간 외 근무 ▲임금 체불 ▲등록금 상납 요구 ▲폭언과 부당지시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실을 대학본부 측에 알렸으나 대학본부 측이 이를 묵시했다고 토로했다. 산업체는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해당 사안을 부인했다. 대학본부는 피해학생들에 대한 학적 유지 결정을 내리고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돼 조사 중이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산업체가 협약을 통해 재직자가 대학에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학과다. 본교의 경우 학생이 부속기관인 '한성대학교 콘텐츠타디자인칼리지(이하 콘디칼)'에 입학한 뒤 2학년부턴 산업체에 취업한다. 재직을 유지하면서 학점을 취득하면 편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인정받는 구조다. 이후 3, 4학년부턴 부속기관이 아닌 '한성대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위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성대학교 학칙』에 따라 산업체와 재학생은 약 50%씩 등록금을 분담하며, 본교는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다.

학생 피해 호소 잇따라

피해학생들은 S 미용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지속적인 시간 외 근무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 당시 하루 9시간, 주 3일, 기본급* 120만 원의 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하루 12시간 이상, 주 6일 근무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S 미용학원 전 재직자인 B(뷰티 22) 졸업생은 "S 미용학원에서 제대로 된 쉬는시간도 없이 근무했다"며 "24시까지 근무를 한 후 대표에게 퇴근하겠다는 연락을 취하자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시간 외 근무에 따른 초과급이 미지급됐을 뿐더러 퇴직금도 미지급

됐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미용학원 전 재직자 C(뷰티 4) 학생은 "2026년 2월, 3월에는 기본급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B 졸업생 역시 "2024년 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 넘게 재직했으나, 1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학생들은 산업체가 부담해야 할 몫의 등록금을 학생에게 상납시켰다고도 주장한다. 상술한 학칙에 따라 계약학과와 협약을 맺은 산업체는 재학생의 등록금 약 5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A 전 대표가 개인 계좌로 등록금의 반액인 약 150만 원을 송금하도록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C 학생은 "등록금 납부 시기마다 등록금을 본인 계좌로 납부하라고 지시했다"며 "3학기 동안 총 460만 원가량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재직 당시 미용학원 대표의 폭언과 부당지시를 감내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욕설과 협박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사업장 감사가 오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이기 위해 재직자들에게 거짓 출근 보고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C 학생은 "외근, 휴일 등으로 거짓 보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B 졸업생은 "대표가 미용 연습을 빌미로 불러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업자료 제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학생 피해 주장에 산업체 측 부인

상술한 S 미용학원 측은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시간만 업무를 지시했으며 늦은 시간에 퇴근한 경우에는 재직자가 자율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입장이다. S 미용학원 A 전 대표는 "미용학원의 운영시간을 고려한다면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하루 10시간이 최장 근무시간이 된다"며 "주에 7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금 체불과 관련해 S 미용학원 측은 퇴사 이후에도 계약학과 학위를 유지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이 산업체에서 임금 체불과 같은 피해를 본다면 퇴사 후에도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A 전 대표는 "업무 일지에 따른 시간에만 업무를 지시했고 퇴직금의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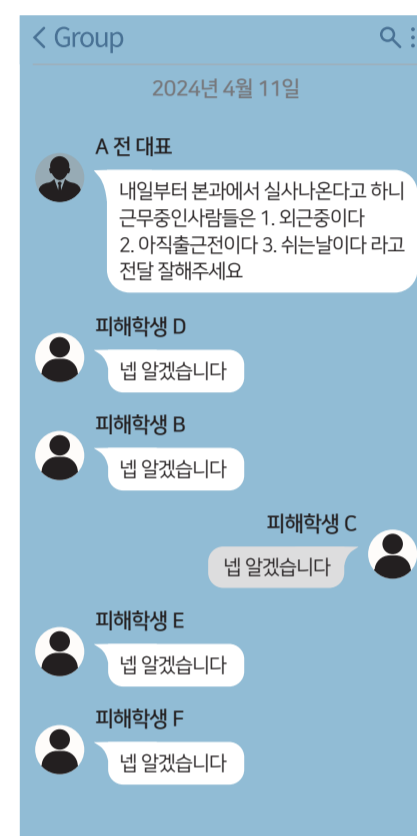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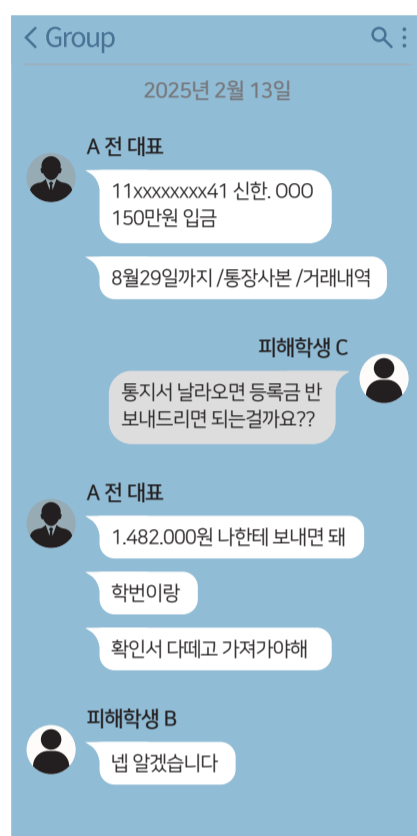
등록금 상납 요구의 경우 재학생들의 반복적인 퇴사로 등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사한 학생들에게 금액을 청구했다고 진술했다. 미용학원 전 대표는 "퇴사시 더 이상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등록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퇴사일 이전 송금 기록은 업무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받은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킨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S 미용학원 측은 폭언과 부당지시와 같은 사안은 현재 미용학원 운영 구조 특성상 발생하기 어렵다는 반박이다. 현재 미용학원은 개별 재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A 전 대표는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아 미용학원을 1년에 두세 번 정도 간다"고 말했다.

피해 호소 속 대학본부 입장은?

피해학생들은 산업체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에 대해 대학본부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인당했다며, 본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콘디칼 교수자의 추천으로 학생들이 산업체에 입사했으나, 산업체에서 있었던 사안에 대한 책임은 산업체 대표에게 일임할 뿐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본지 취재 시 A 전 대표는 콘디칼 시간강사로 근무한 바 있다 밝히기도 했다. B 졸업생은 "계약학과 교수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대표에게 가서 빌어야 한다고 권유하거나 못 들은 것으로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토로했다. C 학생은 "B 졸업생 이후 찾아가자 교수자는 '이번이 5번째다.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이 내가 아니지 않느냐'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산업체 대표는 본교 교수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 피해학생의 소식을 전달받은 후 즉시 학생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2025년 11월경 계약학과인



▲본 메시지 내용은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 한성대신문사가 재구성했다.

뷰티과 일부 학생과 산업체 간 분쟁 사실을 인지한 후, 2025년 12월 2일 '뷰티메니지먼트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해당 산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신규 체결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이를 2025년 12월 30일 해당 산업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피해학생들은 퇴사 후 재학 여부에 관한 문의를 대학본부가 묵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초 올해 1월부터 대학본부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넣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C 학생은 "S 미용학원의 산업체 협약이 종료된 후 재직 유지 여부 및 근무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지난 2월 자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전통지서와 최후통첩문을 발송했음에도 본교는 여전히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대학본부는 사안을 접한 후 학과 차원에서 문의와 대응이 이뤄졌으며, 학적 유지 안건 심의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학위 유지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위원회에서 학적 유지

안건 심의 절차가 진행됐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적 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학본부는 산업체 측의 등록금 상납 요구를 확인해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일부 학생이 산업체 부당 등록금을 해당 업체에 입금한 정황을 확인해 지난 4월 법률적 검토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산업체와 학생 간 분쟁 발생 시 학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계약학과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학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사 및 증빙서류 등 각종 서식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급 : 임금 중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 급여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이예준 기자 i030jay@naver.com

학칙 개정, 학과(부) 명칭 변경 등 주요 사항 담겨

지난 21일 『한성대학교 학칙』이 일부 개정됐다. (별표 1)의 대학별 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 조정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학과(부) 명칭 변경 ▲학사구조 개편 ▲모집 단위 조정 등의 사항이 반영됐다. 변경 사항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명칭이 변경됐다. 먼저 디자인대학은 '아티디자인 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단과대학 내 ▲글로벌패션산업학부 ▲ICT디자인학부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도 각각 ▲AI패션학부 ▲AI융합디자인학부 ▲AI뷰티디자인학과로 바뀐다. 또한 IT공과대학 내 기계전자공학부는 학생 수요와 입학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전자공학부'로 전환된다. 김은주 기획조

정처장은 "개편에 따른 개정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추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학사구조 개편도 단행됐다. 기존 창의융합대학 내에서 운영되던 '미래모빌리티학과'와 '문화문화콘텐츠학과'가 AI융합학부로 이전됐다. 더불어 해당 학부에 'AI기계로봇공학'도 신설됐다. 김 처장은 "작년 12월부터 추진된 학사구조 개편의 최종 결과를 학칙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플러스대학의 모든 학과는 '아티지텔융합인재학부'로 통합돼 주간으로 운영된다. 김 처장은 "통합형 학부 체제를 통해 유연한 교육 운영과 성인학습자와 재직자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

라고 전했다. 글로벌인재대학의 경우 '글로벌정책학과'가 신설됐으며, 영상엔터테인먼트학과와 명칭은 'K-영상콘텐츠학과'로 변경됐다. 김 처장은 "이번 개편은 재학생들의 수요와 변화하는 입시 환경을 반영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향후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간 정원 총 261명이 주간 정원으로 전환된다. 그 과정에서 IT공과대학과 AI융합대학의 야간 전형은 폐지됐다. 김 처장은 "이번 야간 정원 전환은 각 단과대학 및 트랙·학과(부)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향후 각 단과대학이 야간 정원 확대를 희망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현 기자 soohyuniog@gmail.com

본교 논술전형 신설된다

본교에 '가칭'한성AX융합사고 논술전형(이하 논술전형)이 신설된다. 이는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 따라 학생부교과전형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전형은 202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되며, 단과대학 단위로 총 99명을 모집한다.

논술전형은 약술형 논술고사 80%와 학생부교과 20%로 이뤄지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어, 수학 문제를 모집 단위별로 분배해 출제될 예정이다. 국어의 경우 '독서', '화법과 작문' 등에서,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될 계획이다. 전민우(입학관리팀) 팀장은 "논술전형 모집 단위 모두 국어, 수학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라며 "향후 단과대학의 성격에 맞게 문제의 개수와 수

준을 조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 등 고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기 어려운 '비교 내신 성적 산출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통해 성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전 팀장은 "비교 내신 성적 산출 대상자의 성적 산출 기준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본부는 논술전형 신설을 통해 AI와 공존하며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팀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AI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시류에 따라 논술전형을 통해 방대한 정보 속에서 맥락을 파악해 질문의 본질을 탐구하는 신입생을 선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가는 기자 infantcare_silver@naver.com

제5회 타운홀 미팅 개최, 학사·복지 전반 논의 이뤄져

학생 의견 수용해 지원방안 검토할 것

지난 30일 '제5회 한성대학교 타운홀 미팅(이하 타운홀 미팅)'이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사 및 장학 부문과 생활 및 복지 부문 등 다수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대학본부 관계자 16명과 학생대표 17명이 자리했다.

학사 및 장학 부문 안건

- 학과(부) 명칭 변경 관련 논의
- 학생 융합 프로그램 요청
- 블렌디드 수업 개선 재요구
- 교환학생 장학금 관련 문의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단과대학 및 트랙·학과(부) 명칭 변경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2027학년도부터 디자인대학(이하 디대)과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의 명칭이 각각 'AI디자인대학'과 'AI융합대학'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황유빈(뷰티 4) 동연 회장은 "디대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95%의 학생이 명칭 변경을 반대했으며 약 71%가 명칭 변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은주 기획조정처장은 "학생 유지와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학문의 가치 훼손, 학과 정체성 약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학생들과 소통하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는 본교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증설을 건의했다. 서은우(문콘 3) 위원장은 "형식적 교류가 아닌 내외국인 학생 간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즈니스 모델 기획, 교내 정책 제안 등 글로벌 성과 협력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차문경 글로벌협력처장은 "현재 외국인 유학생 관련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하나 단순 교류에 치중된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내외국인 학생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다시금 촉구했다. 정윤지(문콘 4) 총학생회장은 "현재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가 존재하나 모든 블렌디드 수업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규정 미준수 사례 접수를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문석 교육혁신처장은 "현재 수업 중간 평가 등 다양한 방안으로 블렌디드 수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다음 학기부터 블렌디드 수업에 관한 학생 만족도 조사 기간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총학은 교환학생과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국가별 장학금 혜택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물었다. 정 회장은 "전수조사 결과, 어학연수 참여 시 수강료 대비 장학금 지원 비율이 미국의 경우 약 44%에 달하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31.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환학생의 경우 튀르키예는 약 25개월분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반면 일본은 0.3개월분, 영국과 중국은 0.6개월분에 그친다"고 부연했다. 차 처장은 "장학금의 경우 프로그램 구성과 프로그램별 혜택, 체류 기간 등에 맞춰 책정돼 액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사항을 인지 부탁드립니다"며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장학금 상향에 대해서는 고려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생활 및 복지 부문 안건

- 창의대 인프라 지원 예정
- 공학관 승강기 설치 요청
- 본교 홈페이지 안정화 예정
- 추가 홈페이지 개설 불가
- 연습실 시간 연장 건의
- 디대 실습실 시간 연장 요청
- 고시반 및 자격증 확대 요구
- 건강관리실 연장 운영 제안
- 학생회실 공간 개선 예정



▲지난 30일, 제5회 타운홀 미팅에 참여한 대학본부 관계자와 학생대표

생활 및 복지 부문에서도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 창의대 학생회는 학습 기자재 확충 등 수업 인프라 지원을 요구했다. 유선우(문콘 3) 창의대 학생회장은 "AI융합학과, 융합보안학과 등의 경우 고사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업에서의 기자재 부족 및 고장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당초에 시설이 미비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은주 처장은 "기자재 부족과 관리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학기 중으로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차 처장은 "필요한 기자재의 종류에 대한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학생 및 교감사를 대상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기자재 필요와 관련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IT공과대학(이하 공대) 학생회는 공학관 B동의 통행 불편을 지적하며 승강기 설치를 요청했다. 이준호(컴공 4) 공대 학생회장은 "공학관 B동 승강기 부재로 인해 공학관 B동에 가기 위해서 공학관 A동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특히 계단 이용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학습권 저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주형 총무처장은 "구정의 허가과 문화재 승인 검토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후 이동 거리가 설치 허가 사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대위원회(이하 총대)는 본교의 대표 홈페이지 안정화와 UX·UI 개선을 요구했다. 김현진(문콘 4) 총대의장은 "최근 교내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라 종합정보 시스템과 같은 핵심 서비스가 상단에 배치되지 않는 등 각종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공지사항 열람, 학사 일정 확인 등 필수 정보 제공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처장은 "대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 학생과의 소통 및 여러 부서의 협력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총대는 지난해에 이어 학생자치기구 홈페이지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진(문콘 4) 총대의장은 "낙산의 메아리나 인스타그램 등 현재 운영 중인 소통 수단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공식성 결여, 아카이빙 미비, 정보 누락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지난해 타운홀 미팅에서 홈페이지 개선을 약속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지현 대외협력부총장은 "학생자치기구의 기록이나 활동에 대한 아카이브

목적의 별도 홈페이지 마련은 어렵다"며 "자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기존 학생자치기구의 서식을 참고해 홍보팀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크리에이티브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술대) 학생회는 낙산관 연습실의 이용 시간에 대해 연장을 요청했다. 하현구(무용 3) 인문예술대 학생회장은 "낙산관 연습실의 마감 시간은 23시이며 연장하더라도 자정까지만 허용된다"며 "대부분 시간대의 연습실 대관이 무용학과에 쏠려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습실 이용 시간을 1시까지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권삼집 학생진로취업처장은 "연습실의 경우 안전상의 우려로 부득이하게 자정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공간 이용과 연습 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디대 학생회 역시 글로벌배선산업학부 실습실의 이용 시간에 대해 연장을 요구했다. 최혜린(배선 3) 디대 학생회장은 "현재 실습실은 20시 30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 비해 많은 실습량이 몰리다 보니 학생들의 과제 완성에 한계가 있다"며 "이용 시간을 2시간 가량 연장 가능하다면 학생회 인원이 직접 상주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건의했다. 권 처장은 "만약 학생회에서 인원 상주 계획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긍정적인 답변을 주겠다"고 부연했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은 고시반 정원 확대와 홍보에 대해 건의했다. 남도경(사회과학 4) 사과대 학생회장은 "별다른 홍보 없이 공지사항 게시글에만 안내되는 등 고시반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 많은 학생이 모집 시기를 놓치곤 한다"며 "관심도가 높아지는 자격증 분야에 대한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처장은 "최근 개편된 고시반 열람실의 수용 인원이 30명이기 때문에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교내 학습공간 검토가 우선"이라며 "자격증 분야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에 따른 장학금이나 고시반 홍보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과대는 야간 학습자의 건강 및 학습권 보전을 고려해 건강관리실 연장 운영을 제안했다. 신이슬(산공 4) 사과대 부학생회장은 "현재 건강관리실은 17시 30분에 운영을 종료해 야간 학생들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19시까지 연장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조종집(학생복지팀) 팀장은 "해당 사안은 건강관리실 내 시설, 운영 방식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후 답변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총학은 학생회실 비품 배치와 공간 활용 개선을 요구했다. 강민성(ICT 4) 부총학생회장은 "학생회실에 정해진 집기 규격이 없고 내부 공간 및 가구 등이 노후돼 개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은주 처장은 "학생 복지공간 관련 예산을 꾸준히 증액 중"이라며 "최근 학생회 측의 후관 학생회실 개선 요구도 존재해 전체적인 시설 개선 사항을 확인한 후 집기나 가구 등의 마련을 추후 의논을 통해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김세현 기자 24kbird@naver.com

2차 대의원총회 종료, 예산안 모두 가결

지난 24일 '2026학년도 상반기 2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상상관 204호에서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는 '2026학년도 상반기 IT공과대학 예산안 심의'와 '총학생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의'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상술한

모든 예산안은 재적 대의원 중 과반의 찬성을 받아 최종 가결됐으며, 총 10,805,000원의 예산이 인준됐다.

지난 4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IT공과대학 학생회 '정점'은 총 805,000원을 승인받았다. 예산안

세부 항목에는 ▲대여사업 ▲짜신포스트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가 포함됐다.

총학생회 '은(ON:穩)'(이하 총학생회)의 대동제 추경 10,000,000원도 가결됐다. 지난 1차 총회에서 총학생회는 30,000,000원의 대동제 예산을 인준받았다. 인준받은 예산은 교비와 혼합돼 무대 설치비, 아티스트 섭외비, 카메라 대여비 등에 운용될 예정이다. 정윤지(문콘 4) 총학생회장은 "가파른 물가상승률로 인해 기존 금액으로는 대동제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추경을 요청하게 됐다"며 "예산 집행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 산출 근거를 더욱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조수현 기자 soohyuniog@gmail.com



'Lunch with the President' 행사 개최 '지난 7일, 'Lunch with the President' 행사가 상상관 12층 '케이키친 한상'과 상상관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본교 재학생과 총장이 함께 식사하며 대담을 나누기 위해 열렸다. 이창원 총장, 장명희 교학부총장, 김지현 대외협력부총장을 포함한 대학본부 관계자 8명과 재학생 14명이 참석했다. 재학생들은 ▲토론식 수업 확대 ▲현장실습 제도 효율성 제고 ▲전자트랙 학생 참여 가능 프로그램 확대 등 건의 사항을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주영(컴공 3) 학생은 "다양한 조언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다음 학기에도 많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신청해 보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대해 이 총장은 "학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년이라는 재학 기간을 유의미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예준 기자 1030jay@naver.com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모두의 노동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63년 만에 노동절이 돌아왔다. '2026 세계노동절대회(이하 노동절대회)'가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진행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은 직접 거리로 나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원청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확장되는 노동의 경계

5월 1일 노동절은 130여 년 전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데서 비롯됐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5월 1일을 세계 노동자의 연대와 권리 쟁취를 기념하는 날로 지정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절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권리를 요구하며 쟁취해 온 역사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절은 63년 동안 '근로자의 날'로 불리며 그 의미가 축소돼 왔다.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이 '노동절'로 지정됐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명칭은 '근로자의 날'로 바뀌고 날짜 역시 5월 1일로 조정됐다. 63년 동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불리며 그 의미가 축소되기도 했다. 상술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5인 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으며 노동자의 범위가 제도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이날은 모든 노동을 포괄하는 기념일이 아닌 일정한 고용 형태 안에 있는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삼아 노동의 경계를 나누는 방식으로 작동해 온 셈이다.

노동절로의 명칭 복원과 더불어 공휴일

로의 편입이 이뤄지면서, 5월 1일은 특정 고용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모든 노동을 포괄하는 기념일로 재구성됐다. 이는 노동을 둘러싼 배제의 경계를 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제도 안으로 다시 포함시키는 변화라는 점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확대되는 상징적 전환으로 읽힌다.

제도 밖에 남겨진 노동자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채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 지난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제도 변화가 곧바로 현실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민간부문 216개, 공공부문 156개 원청이 교섭요구를 받았지만 실제 교섭에 응한 곳은 3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원청 역시 교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나아가 노란봉투법의 보호 범위 바깥에 놓인 노동자들도 존재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개인사업자라는 열악한 환경 아래 노동자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원청인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장시간·저단가 구조인 운임 정상화와 안전운임 보장,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단적인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원청은 고용관계 부재를 이유로 교섭요구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은 개인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동절 대회의 참여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거리에서 이어진 노동권의 외침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다시 광장에 모였다. 지난 1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절대회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열린 노동절 대회는 오후 3시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대회사와 연대 발언, 각 노조 및 연대 단체 대표자의 발언, 결의문 낭독,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식순인 행진은 세종대로사거리를 출발해 종로1가 교차로와 을지로1가 교차로, 한국은행 앞 교차로, 소공로를 거쳐 서울 시청 광장까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도심을 행진하며 '원청 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회를 맡은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이주,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발언을 위해 무대에 오른 김란희(서비스연맹 관광레저노조) 조합원은 "복수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를 갈라치기 한 기업을 알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정훈(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이름은 되찾았지만 권리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라며 "다단계 하청 구조와 차별적인 법 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운(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 역시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진익(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은 "여전히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며 "특수고용, 플랫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수경(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음에도 사용자들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영철(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역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청 책임을 묻는 투쟁이 이어져 왔다"며 "원청 교섭 투쟁을 통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행진에서는 노동자들의 원청 교

섭권을 촉구하는 외침이 거리를 메웠다. 전호일(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석지침으로 정부는 원청 사용자로서 지위를 회피하고 있지만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민간사업자가 따라온다"며 "산업별 교섭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과 그 결과가 모든 산업별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이런 형태의 논의를 제도적으로 안착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교섭에 나서고 처우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고은유(서울대학교 미학과) 재학생은 "청년 역시 결국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는 만큼 노동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며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유미(청년유니온) 집행위원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학 사회의 참여도 이어졌다. 송주명(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도 "현장에서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다.



▲화물연대본부 사망 노동자를 기리며 구호를 외치는 노동자들

임기자의 외교 노트

원유가 나오지 않는 한국이 원유 안전지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저장·관리 능력이 대두되며 한국이 에너지 거점으로 도약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원유 저장 능력이 새로운 에너지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약 5개월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출 경로 분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원유의 안정적 확보가 에너지 안보 핵심 요소로 떠오른 것이다. 이창배(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3월 회원국에 원유 순 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의 비축유 확보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뜻밖에도 전세계가 한국에 '터브콜'을 보내고 있다. UAE 등의 중동 산유국이 자국의 원유를 한국 영토 내에 보관하는 국제 공동 비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UAE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영석유사(ADNOC)'와 계약 체결을 통

해 한국은 비상용 에너지 약 2,400만 배럴(약 38억L)의 원유를 확보하고 우선 구매권까지 손에 넣었다.

한국에서도 에너지 거점이라는 지위를 굳히기 위해 많은 더 원유를 보관할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26조 원 규모 추가 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축유 관리 강화를 위한 1,908억 원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이미 1억 4,600만 배럴(약 232억L) 규모의 원유에 추가로 약 2,000만 배럴(약 32억L)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이창배 교수는 "정부의 투자 확대는 한국을 국제 원유 저장고로 육성하려는 전략"이라고 답했다.

중동산 원유가 한국으로 향하는 이유에는 한국의 강력한 저장·가공 시설이 있다. 원유를 휘발유, 경유 등으로 바꾸는 정유·석유화학 시설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세계 6위 수준의 비축 역량과 하루 약 300만 배럴을 처리 가능한 정유·석유화학 시설을 갖췄다. 이러한 환경에서 원유의 품질 유지와 혼합·재가공·재공급까지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구축됐다. 공급망 위기 시 한국의 원

유 저장고는 창고가 아니라 시발점으로 바뀌는 셈이다. 고보민(인전대학교 GTS학부) 교수는 "한국은 정유·석유화학 산업과의 높은 연계성을 바탕으로 비축된 원유를 신속히 가공·재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전했다.

여기에 비축유를 실제 공급망에 즉시 연결할 수 있는 운용 체계 역시 한국의 강점으로 꼽힌다. 한국은 해외 공동비축, 정유사 등 민간 기업과 연계한 협력형 비축 체계를 가졌다. 또한 여러 거점에 분산하는 네트워크형 비축 등을 통해 단일 저장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왔다. 이는 비축유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 교수는 "한국은 정유·석유화학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비축자산이 실제 공급망 안정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해상 물류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지점인 이른바 '조크 포인트(Choke-Point)'에서 한 발 비켜나 있다는 점도 한국의 경쟁력이다. 조크 포인트란 길목이 좁아 해상 통행이 제한적인 곳으로, 사고나 분쟁이 발생할 경

우 전체 물류 흐름이 연쇄적으로 막히는 지점이다. 이는 대개 중동과 동남아 해역에 집중돼 있으나 한국은 해당 구간의 영향을 훨씬 덜 받는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항만 접근성이 뛰어나 중동 주요 수송로와 지리적으로 거리를 둔 곳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안영호(인천대학교 GTS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한국이 중동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한계였으나 현재는 오히려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 경쟁국과 비교해 외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도 우위를 확보한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 국가의 정책 개입이 강해 안정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한국은 일본보다 중동 산유국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기에 산유국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대외 경제 협력 기조와 계약 이행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 이창배 교수는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신뢰성이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비축 물량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국내 유가 급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이 평소에는 원유를 사고 파는 거래로 수익을 내다가도 필요할 경우 원유를 국내용으로 돌려 기름값 폭등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의 운용 역량이 공급 차질 국면에서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완충장치이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 교수는 "미국, 한국 등은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하며 유가 급등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비축기지를 중심으로 정유·석유화학·해운 산업이 맞물리며 에너지 산업 전반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의 저장과 가공, 운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공급 전반의 총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에너지 인플레이션(IMARO)에 따르면 한국 석유 시장은 2024년 약 5,070억 원에서 29억 1조 7,420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안 교수는 "항만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해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라고 전망했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원유의 방주, 한국에 정박하다

불교 좋아하는 사람, 부처핸즈업



**문화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어느 세대나 그랬듯, 현 젊은 층도 자주 듣는 물음이다. 진짜 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알아봤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는 기자가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MZ세대의 대표주자인 기자를 따라 청년이 열광하는 것을 파헤쳐보자.

젊은 중생들이 모여든다. 한때는 일상과 멀게 느껴지던 불교가 이제 청년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청년은 불교박람회로 방문해 불상 키링을 구매하고, 아이돌 생일 카페에서 차용한 부처님 생일 카페에 방문해 부처님 등신대와 인증사진을 남긴다. 나아가 절밥이라고 불리는 사찰 음식까지 섭렵했다. 이천여 년 전 한국에 뿌리내린 불교가 어떻게 새로운 문화로 피어오르는지 기자가 사찰에 핀 연꽃 위에 살포시 올라타 봤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금세현 기자 24kbird@naver.com

변화하는 청년을 사로잡다

청년층 사이에서 불교가 신앙심과 무관하게 누구나 즐기는 문화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 실제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관람객 중 2030세대 비율은 73%에 달했으며, 무교 관람객도 48%를 차지했다. 김영재(한양대학교 ERICA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불교는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추세며, 박람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불교계는 가벼운 체험을 마련해 청년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교리 전달 중심의 포교에서 벗어나 체험과 공감을 앞세운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개인의 경험과 깨달음을 중시하는 불교 교리의 특성 속에서, 믿음 없이도 종교를 문화 콘텐츠로 가볍게 향유하는 '라이트(Light) 신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석길암(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부) 교수는 “불교는 처음부터 엄격한 의례와는 무관한 종교였다”며 “불교가 시류에 맞게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불교의 유연한 가치관 역시 청년 세대의 공감을 얻는 요인으로 꼽힌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가르침은 개인의 속도와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이는 과도한 경쟁과 비교에 피로감을 느끼는 청년에게 심리적 여유를 준다. 특히 불교는 특정한 신을 따르기보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방향을 찾아가는 수행을 강조한다. 이를 기반으로 불교는 청년에게 신앙을 넘어 '스스로 성장하는 방식'으로 다가간다. 임명호(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불교에서 부처님은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성공한 수양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존재”라고 덧붙였다.



▲불교박람회 부스 앞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



▲기자가 양복을 입은 부처 전신상 옆에서 포즈를 취한다.

극락행 티켓을 끊다

산 속에 있는 사찰에 가야만 불교를 접할 수 있다는 공식은 잊어라. 바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불박)'의 등장이다. 지난달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불박은 약 25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만 명이 늘어난 역대급 흥행을 이뤘다. 김 교수는 “불교가 힙한 취향과 결합되며 청년 세대가 능동적으로 즐기는 새로운 콘텐츠가 됐다”고 분석했다.

전통 사찰 대신 불박은 다양한 콘텐츠를 앞세워 청년에게 색다른 재미로 다가온다. 전통 불상 전시는 물론, 스님 대신 목탁을 치는 고양이 장식품 등 MZ세대의 취향을 가득 담은 힙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EDM 음악에 맞춘 퍼포먼스까지 더해지며 불교는 신선한 문화로 재탄생했다. 불박에서 부스를 운영한 연화사의 연기 스님은 “과거에는 교리를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불교 관련 키워드를 재치 있게 풀어내며 쉽게 다가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직접 찾은 불박 현장은 시작부터 열기로 가득했다. 건물 입구에는 길게 늘어

선 대기 줄이 이어졌고 내부는 걷기 쉽지 않을 정도로 붐볐다. 인파 사이로 기자의 눈을 사로잡은 분홍색 본존불 피규어를 구매하기 위해 쪼뼛 땀을 흘리며 손을 뻗기도 했다. 불박에 참석한 노지원(23)씨는 “반가사유상 키링을 구매해 가방에 달고 다니며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마다 바라본다”고 밝혔다.

청년은 불교 굿즈를 통해 불교의 교리를 '취향'으로 풀어낸다. 마음을 다독이는 문구가 담긴 소품을 구매하며 일상 속 원동력을 얻는다. 반가사유상 피규어의 미소에서 여유로움을 느끼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도 한다. '무소유'를 말하는 불박에서 두 손 가득 굿즈를 들고 나온 뒤 '오늘 완전 풀(Full) 소유했다'고 웃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석 교수는 “청년은 불교의 교리를 주제적으로 재인식하고 직접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오늘 우리의 최애는 부처님

'부처님 생일 카페(이하 부처님 생카)'가 청년층 사이에서 불교를 색다르게 즐기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이돌 팬덤 문화에서 출발한 형식이 불교와 결합하면서 부

처님 오신 날마저 청년의 취향과 감각이 반영된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연화사에서 진행된 부처님 생카는 총 500잔 분량의 연꽃 라테가 조기 소진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부처님 생카는 재치있는 인테리어와 이색적인 메뉴를 통해 불교를 보다 친근하게 풀어낸다. 'Happy Buddha Day'와 같은 재치 있는 슬로건 아래 불교 요소를 반영한 다양한 메뉴가 판매된다. 공간 역시 아이돌 생일 카페처럼 꾸며져 익숙한 생일 카페에 불교 상징을 자연스럽게 녹여내 청년의 참여를 유도한다. 김 교수는 “부처님 생카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은 부처님을 하나의 '최애'처럼 대한다. 부처님 생카에서 연꽃 라테를 마시며 굿즈를 모으고, 포토존에서 찍은 인증샷을 SNS에 공유한다. 가벼운 자기 수양마저 즐거운 콘텐츠처럼 소비하며 청년은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얻는다. 불교 문화를 공유하며 청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꾸준히 돌보는 계기를 얻기도 한다. 부처님 생카에 방문한 김영채(25) 씨는 “부처님이 중

교에서 모시는 존재보다 더 가까운 존재로 느껴지는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기자가 직접 부처님 생카에 들어서자 먼저 눈에 띈 건 아이돌 생일 카페 못지않게 구성된 공간이었다. '중생아 사랑해' 스티커가 붙은 거울이 배치돼 있고 부처님 등신대가 놓인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남긴다. 연꽃 라테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광팬이 된 듯하다. 카페에서 직접 스님과 마주 앉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상보다 훨씬 유쾌한 분위기였다. 김 씨는 “생카 분위기에 불교가 친숙 녹아 있어 불교를 덕질하듯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몸과 마음을 챙기는 한 끼

불교 문화를 향유하는 청년층이 늘어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밥(심)' 등 주요 사찰 무료 급식 이용자가 급증해 배식 규모가 5배까지 늘었을 정도다. 사찰 음식은 지난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청년밥(심)을 운영하고 있는 연화사의 주지인 묘장 스님은 “먹는 것이 곧 나를 이루듯이 사찰 음식은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식사”라고 설명했다.

건강을 중시하는 채식 트렌드가 확산되며 사찰 음식이 새로운 식문화로 주목받고 있다. 채식과 육식을 병행하는 '유연한(Flexible)'과 '채식주의자(Vegetarian)'인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이 증가함에 따라 사찰 음식이 더욱 각광받는다. 석 교수는 “지구에 자주 노출되는 청년에게 사찰 음식은 새로운 식문화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찰 음식을 통해 적극적인 식탁에서 잠시 벗어나 청년은 비움(空)을 경험한다. 자극적인 음식과 빠른 식사에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한 끼를 음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식사에 집중하게 된다. 오신채를 배제한 식단은 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석 교수는 “몸과 마음을 가볍게 비워내는 경험은 과잉 소비와 빠른 일상에 익숙해진 청년에게 색다른 침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찰 음식점 '마지'에 방문해 직접 사찰 음식을 먹어봤다. 정갈하게 차려진 연잎밥 한 상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은은한 연잎 향이 스며든 밥과 담백한 반찬을 맛보며 재료 자체의 맛에 집중했다. 매운맛, 짠맛 등 강한 자극 없이도 깊은 풍미가 전해졌다. 평소와는 다른 절제된 한 상이 주는 만족감이 매력적이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몸과 마음이 한층 가벼워진 듯한 여운도 남았다. 김 교수는 “사찰 음식은 건강한 식재료를 통해 몸의 부담을 덜고 건강을 추구하는 점이 매력”이라고 말했다.

*오신채 : 마늘, 부추, 달래, 파, 흥거 등 자극성이 있는 다섯 가지 채소류



▲풍선과 부채로 꾸며진 부처님 생일 카페



▲기자가 사찰음식을 먹고 있다.

작품과 나 사이, 예술로 삶을 반추하다

널위한문화예술 이지현 공동대표



사진 출처 : 이지현 대표

‘국내 문화예술 부문 채널 구독자 1위’, 예술 뉴미디어 기업 ‘널위한문화예술(이하 널위문)’의 채널을 수식하는 문장이다. 널위문은 대중에게 전시예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예술은 이제 누구나 가볍게 향유하는 콘텐츠가 됐다. 하지만 ‘난해함’이라는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지현 공동대표(34)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술과 대중 사이를 잇는다. 예술가의 복잡한 의도를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며, 예술의 문턱을 허물고자 한다. 관객이 정답을 찾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취향과 안목을 지닌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지현 대표가 추구하는 진정한 변화다.

이지현 대표는 예술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강조한다. 예술 너머의 주체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를 만나 가치관을 들어봤다.

Q1.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처음부터 예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대학교 역시 성적에 맞춰 무난한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방향했다. 그러던 도중, 방향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했고, 문득 회화과를 복수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미술을 접하면서 점차 효율과 편리함을 좇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작품에 깊이 있게 자신만의 해석을 담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이야말로 사람과 세상에 질문을 던지게 하는 도구라고 느껴져 매력됐다.

Q2. 대학 졸업 후 널위문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대학원 시절 운영한 SNS에서 쉬운 콘텐츠의 가치를 깨달았다. SNS를 통해 같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강의에서 다른 내용을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런 경험들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쉬운 콘텐츠의 가치를 몸소 느꼈다. 당시 널위문의 오대호 대표와 SNS 페이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입사 제안을 받았다. 오 대표와 ‘어려운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이 일치해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Q3. 널위문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달라.

예술 향유의 전 과정을 아우르기 위해 유튜브 채널, 전시 티켓 판매, 신진 예술가 활로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채널 ‘널 위한 문화예술’, ‘예술의 이유’를 운영 중이다. 채널을 통해 전시와 작가의 이야기를 대중의 언어로 전달하며, 예술에 담긴 인문학적 지식과 깊이 있는 담론을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전시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99티켓’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술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예술 스터디도 진행한다.

Q4. 널위문이 추구하는 기업 가치가 무엇인가.

널위문은 예술을 통한 자아 발견과 주체적 삶의 확산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예술을 통해 대중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더 나은 나로 발전하는 것을 유도한다. 콘텐츠의 조화나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는, 관객이 콘텐츠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향점이다.

Q5. 인상 깊었던 전시 기획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엇인가.

〈Piece of us〉 전시를 꼽고 싶다. 예술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컨셉의 독특한 전시였다. 작품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오로지 작품만을 접할 수 있게 설계하고자 했다. 해당 전시를 통해 관객들이 다른 정보에 얽매지 않고 온전한 본인만의 사고를 펼쳐나갈 수 있었다.

Q6. 콘텐츠 및 전시 기획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하는 요소가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몰입도’다.

콘텐츠를 통해 관객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진다. 단순히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작가에 대한 소개보다는 작품 내에 숨겨진 의도를 질문 형식으로 제시해 스스로 해석하게끔 만드는 방식이다. 또한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객이 이탈하는 지점을 분석한다. 설명면, 이해도와 BGM, 조명, 작품과 관객 간의 거리 등 여러 요소를 조정하며 관객이 전시장에 남아 있게끔 설계한다. 이처럼 관객이 전시장 안에서 작품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획 원칙이다.

Q7. 앞으로의 목표나 전시 및 콘텐츠 기획 확장 계획이 있다면.

널위문의 서비스를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다. 홍콩을 거점으로 글로벌 채널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1년 안에 국내 예술가들을 해외에 소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

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결국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관객의 질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 목표다. 관객과 관객, 관객과 예술가를 연결하고 나아가 세상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

Q8. 청년이 예술을 향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술 향유를 통해 ‘나라’의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청년들은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때 예술을 통해 나만의 질문을 품고 주체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다. 예술에는 정답이 없어 오로지 자신만의 사고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이는 청년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설계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

Q9. 청년의 예술 향유와 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작품 앞에 서서 예술가의 삶을 나의 삶에 대입해 보길 바란다. 비록 예술가와 나는 다른 시기,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 감정과 생각에 이입해 과거를 반추하는 과정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해준다. 예술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해석해 나가는 힘을 기른다면,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소속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 회화과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널위한문화예술 공동대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심의위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자문위원

유튜브 운영

널 위한 문화예술
예술의 이유

도서

〈예술계 돌아가는 소리〉 공동저자
〈예술을 팝니다〉 공동저자
〈모두를 위한 키워드 미술사〉 집필

연재 중인 플랫폼

예술24 아티오피
픽 F&G
한화 라이프플러스



▲ 'TED' 강연을 진행하는 이 대표



▲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는 이 대표



내일의 동력이 되는 한 방울의 흐름

리터당 2050원. 지난 4월 기준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1% 상승한 수치를 보여 준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자 전 세계는 유가 안정화 전략 마련에 혈안이다. 이러한 가운데 원유를 정제하는 기술이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모든 석유 제품의 출발점인 원유는 지하에서 채굴해 아직 가공되지 않은 액체 상태의 에너지를 일컫는다. 원유는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미세한 해양 유기물이 분해되며 형성되므로 탄화수소, 염화나트륨, 황, 질소 등 여러 불순물이 혼재돼 있다. 이를 가공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석유 에너지가 된다. 김병준(한국폴리텍대학교 석유화학공정과) 교수는 “여러 성분이 뒤섞인 원유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각 성분의 미세한 물리적 특성 차이를 정교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순물이 포함된 원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정제 공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크게 ▲탈염 ▲증류 ▲정제 ▲블렌딩 등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 중 탈염은 원유 내에 포함된 염화나트륨(NaCl)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본격적인 공정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염화나트륨의 염분은 고온에서 분해되며, 분해된 염화 이온(Cl⁻)은 정제 설비 겉표면에 달라붙어 치명적인 부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안유찬(계명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는 “탈염은 안정적인 공정 운영과 설비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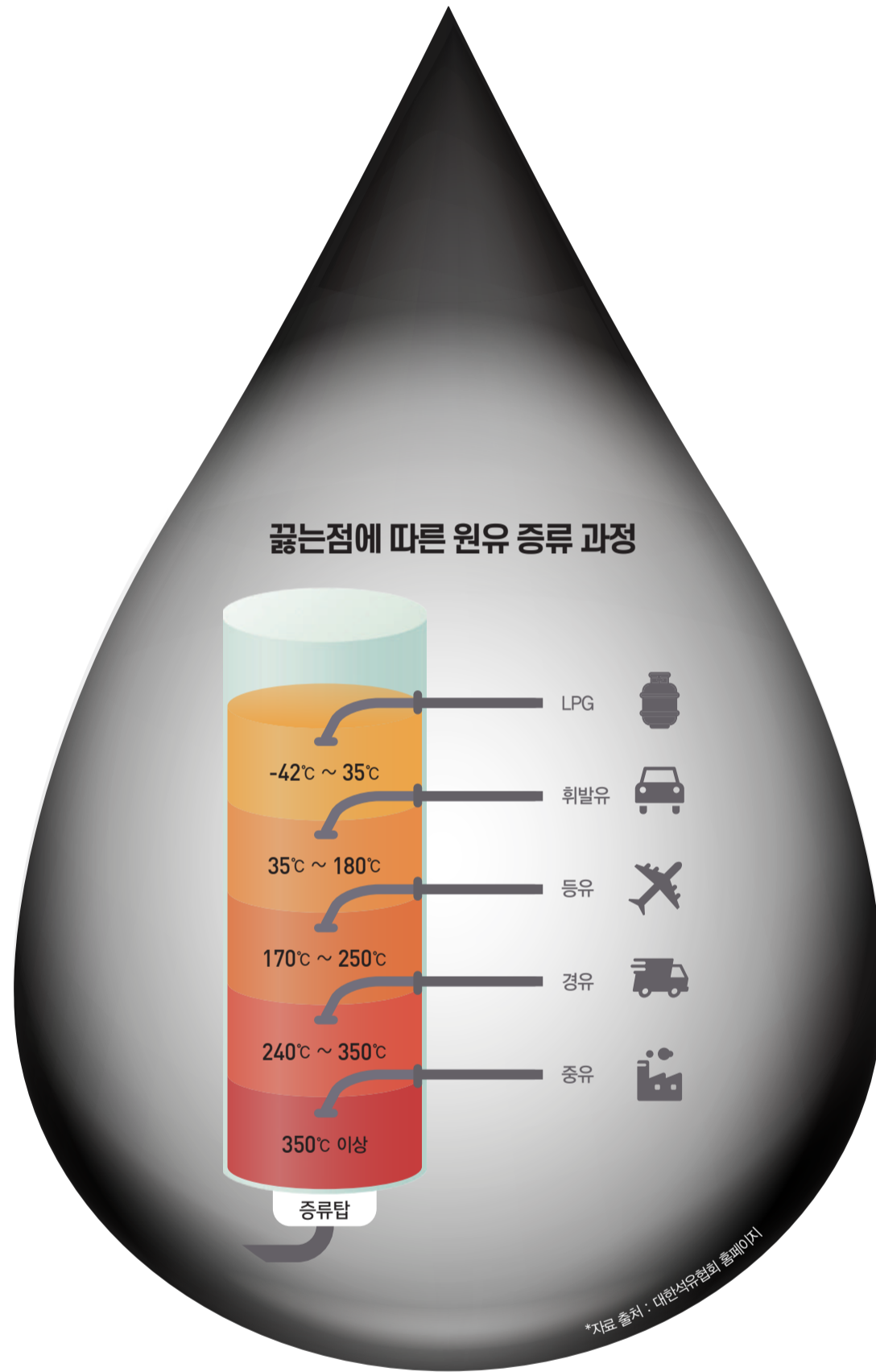
탈염 공정의 핵심은 원유에 물을 주입해 염화나트륨을 분리하는 데 있다.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 원유 내 염화나트륨만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염화나트륨은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Na⁺)과 음이온인 염화 이온으로 구성돼 있다. 염화나트륨이 물 분자(H₂O)와 만나면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고 염화나트륨만이 물에 녹아든다. 물 분자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뤄져 있어 각각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 분자와 결합한 염화나트륨은 원유와 분리된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후 미세한 물방울을 원유와 완전히 분리시키는 ‘전기적 공정’이 뒤따른다. 원유에 강력한 고전압을 가해 전기장을 형성하면, 분산돼 있던 물방울은 일시적으로 양전하 혹은 음전하를 띤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겨 거대한 물방울로 결합한다. 물방울끼리 뭉쳐 밀도가 커지면 중력의 영향으로 하단에 가라앉으면서 염화나트륨이 깨끗하게 분리된다. 김성원(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교수는 “염화나트륨과 물 분자가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입자가 커진 염분을 밀도 차에 의해 원유로부터 완벽히 분리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류는 원유를 가열해 원유의 여러 물질을 기체로 만든 후, 각 물질의 끓는점 차이를 활용해 다시 액체로 변환하는 공정이다. 끓는점이 낮은 성분은 먼저 증발해 위쪽에서, 높은 성분은 아래쪽에서 응축돼 서로 다른 층으로 나뉜다. 이렇게 분리된 각각의 성분을 ‘유분(油分)’이라고 한다. 증류의 핵심 원리는 유분 내의 탄화수소(C_nH_m) 분자를 고온·고압으로 반응시켜 떼어내는 것이다. 탄소 원자(C)와 수소 원자(H)로 구성된 탄화수소 분자는 서로 결합해 인력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띤다. 분자 구조 내의 탄소 원자 수가 많을수록 이 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진다. 이를 떼어내 기체로 만들려면 인력을 이겨낼 수 있는 고온의 열이 필요하며, 인력이 강할수록 원유의 끓는점은 높아진다. 김병준 교수는 “미세한 물리적 특성 차이를 정교하게 이용하는 것이 복잡한 원유를 유분별로 분리해 내는 증류 공정의 핵심 원리다”고 말했다.



▲증류 과정에 이용되는 상압증류탑



증기 형태의 원유는 탄화수소 분자가 해체된 상태로 증류를 위해 원통형 구조인 ‘상압증류탑(CDU)’ 하단부로 투입된다. 원유는 상압증류탑 내부에서 위로 상승하며 자신의 끓는점보다 낮은 온도의 층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원유가 더 이상 끓지 않고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다시 결합하며 증기 상태에서 액체가 순차적으로 변환된다. 증류를 거친 원유는 ▲LPG ▲등유 ▲경유 ▲중유 등의 유분으로 분리된다. 안 교수는 “상압증류탑은 상단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구조를 통해 끓는점에 맞는 위치에서 응축되도록 설계된 장치”라고 설명했다.

원유 분류가 끝났다면, 정제를 통해 대기 오염의 주범이자 설비 부식의 원인인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수소화 탈황법’이 사용된다. 증류를 거친 유분 내에는 여전히 황(S)과 질소(N) 등 불순물이 포함돼 있다. 황과 질소는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내부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김재유(경기과학기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는 “수소를 주입해 화학적으로 불순물을 밀어내고 탄화수소 본연의 순도를 회복해야만 비로소 엔진의 성능을 보장하고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청정 연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소화 탈황법은 유분 내 ‘수소’를 주입하면서 출발한다. 알루미늄(Al₂O₃) 등의 촉매로 유분 내 수소 분자(H₂)를 고온·고압으로 반응시키면, 촉매는 수소 분자를 수소 원자 상태로 쪼갬다. 이때 쪼개진 수소 원자는 불안정한 성질을 가져 개별로 존재하는 황이나 질소와 결합하려는 성향을 띤다. 따라서 수소 원자와 황과 질소와 결합해 황화수소(H₂S)와 암모니아(NH₃)로 변환된다. 이후 냉각 과정을 거쳐 유분은 기체에서 액체 상태로 응축된다.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는 기체 상태에서 탑 상부로 배출된다. 김병무(울산대학교 LINC3.0 사업단) 연구교수는 “수소 분자를 반응성이 큰 원자 상태로 쪼개 탄소 사슬에 박힌 황과 질소를 강제로 제거하는 것

이 수소화 탈황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끝나면 ‘블렌딩’ 과정이 이어진다. 자동차, 각종 설비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블렌딩은 정제가 끝난 여러 유분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고 첨가제를 투입해 제품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최종 공정이다. 단순히 기름을 섞는 것이 아니라 연소 효율을 높이거나 저온에서도 연료가 굳지 않게 하는 등 성능 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다. 김재유 교수는 “블렌딩은 연소 효율과 환경 기준 등 까다로운 시장 규격을 충족함으로써 제품으로 유통되기 전 최종적인 가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소화 탈황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그중 항공기의 연료가 되는 항공유는 등유 유분에 기반한 블렌딩을 거쳐 탄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유 정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매우 발달돼 있다.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특성상 낮은 온도에서도 연료가 얼어붙지 않도록 빙점 강하제를 섞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밀 배합 기술 덕분에 국내 생산 항공유는 세계 최고 품질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항공유 생산량은 1억 5,000만 배럴 규모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병무 연구교수는 “항공유는 영하의 환경에서도 얼지 않고 흐를 수 있어야 해 정밀한 강하제 배합이 필수적이다”며 “블렌딩 기술은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해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현재 정유 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녹록지 않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실제로 국내 정유사들의 원가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전쟁 전후로 무려 50~70%가량 상승했다. 이에 원유 수급 공백이 수개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수진(한국폴리텍대학교 석유화학공정과) 교수는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외부 지정학적 리스크는 산업 전반에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정유업계는 항공유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항공유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41% 증가한 2,309만 배럴을 기록하며 위기 속에서도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박기태(건국대학교 화공·생명·에너지공학부) 교수는 “국내의 기술력 덕분에 유가 위기 속에서도 항공유 등 고부가 제품 수출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러한 기술은 비산유국인 한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다”고 부연했다.

국내의 원유 정제 기술은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생산을 넘어 미래를 향하고 있다. 최근에는 차세대 항공유인 SAF(Sustainable Aviation Fuel)는 기존 원유 대신 폐식용유나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원료를 정제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지속 가능한 연료다. 이는 글로벌 항공 업계의 탈탄소화 흐름에 맞춘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SAF는 단순히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 에너지의 근본적인 원료를 전환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친환경 경로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구 교수는 “SAF 생산 기술은 정유업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통적인 정제 기술의 정교함이 친환경 원료와 결합해 새로운 에너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페플라스틱이나 폐비닐에서 석유 성분을 다시 뽑아내는 ‘열분해 플랜트’ 기술 역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폐자원을 단순히 소각하는 대신 정유 공정의 대체 원료로 전환해 자원 순환을 실현하는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전통적인 정유 공정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기조에 따라 신소재 산업과 융합하고 있다”며 “자원을 새로운 에너지 원료로 탈바꿈시키는 ‘순환 경제’의 핵심 기지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삼 기자 kimsan060421@naver.com

황수민 기자 hsu.min260@gmail.com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학송 언제까지 회피하실 건가요

본교 계약학과인 뷰티매니지먼트학과 재학생이 산업체 재직 과정에서 각종 피해를 호소했다. ▲시간 외 근무 ▲임금체불 ▲등록금 상납 요구 ▲폭언 및 부당지시 등이 이에 해당했다. 학생들은 대학본부와 교수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토로했다.

본지 취재 결과 실제 피해 정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계약학과는 『계약학과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대학과 산업체가 운영·관리하며 산업체가 학생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금을 일부 분담하는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산업체가 부담해야 할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임금체불, 폭언, 서류조작 등의 부당지시도 제기됐다. 학생들에게 계약학과는 배움의 현장이라기보다 언제 쏘아질지 모르는 소나기를 홀로 맞아야 하는 공간에 가까워 보인다.

대학본부의 대응은 학생들을 더욱 막막하게 만들었다. 피해 학생들은 대학본부와 교수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산업체에서 관리되어야 할 이기에 무관하다며 학생들에게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어떤 문제가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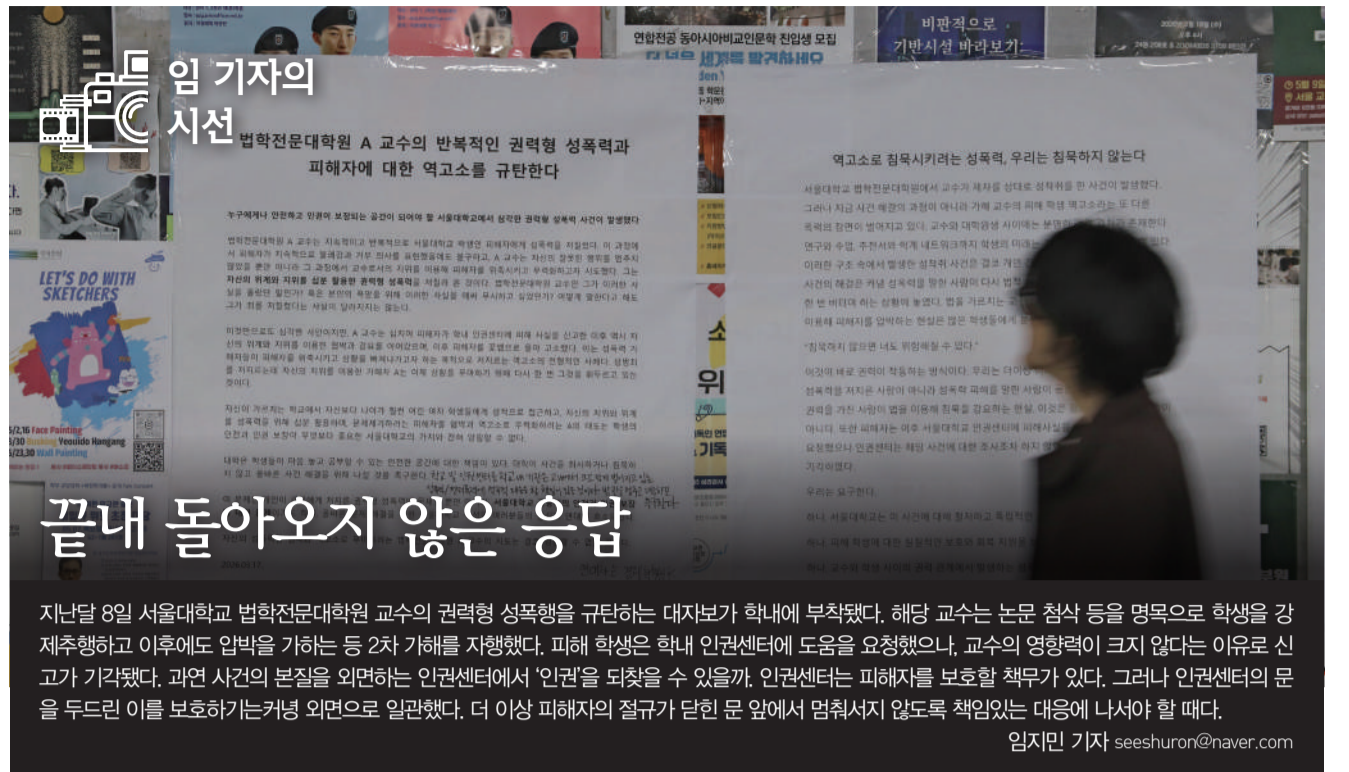
그럼에도 본지 취재 과정에서 대학본부의 해당 대응이 학과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꼬리를 잘랐다.

혹자는 대학본부가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학과와 본질은 '현장 연계 교육'이 '위임된 방식'이 아니다. 대학이 교육 환경을 함께 책임진다는 전제가 무너지면, 대학은 결국 단순한 학적 관리 기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대학의 대응은 학생 보호보다 책임을 면피하는데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을 정도다.

산업체와 학생 사이의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거리를 두기에는, 대학은 이미 학생을 해당 산업체로 보낸 당사자이다. 학적 유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을 보호한다는 책임 자체를 이행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폭언과 부당대우,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학이 최소한의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보호 절차와 대응 방향을 안내했어야 하지 않을까.

문제가 터진 뒤 뒤늦게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학생이 위엄을 호소하는 순간 최소한의 안내라도 제공하고, 가장 앞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본교가 끝내 외면해서는 안 될 관리와 지원의 책임이다.

이승희 편집국장



임기민 기자 seeshuron@naver.com

끝내 돌아오지 않은 응답 앞서간다는 착각

지난달 8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권력형 성폭행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부착됐다. 해당 교수는 논문 침착 등을 명목으로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압박을 가하는 등 2차 가해를 지행했다. 피해 학생은 학내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교수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가 기각됐다. 과연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인권센터에서 '인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인권센터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린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외면으로 일관했다. 더 이상 피해자의 절규가 닫힌 문 앞에서 멈춰서지 않도록 책임있는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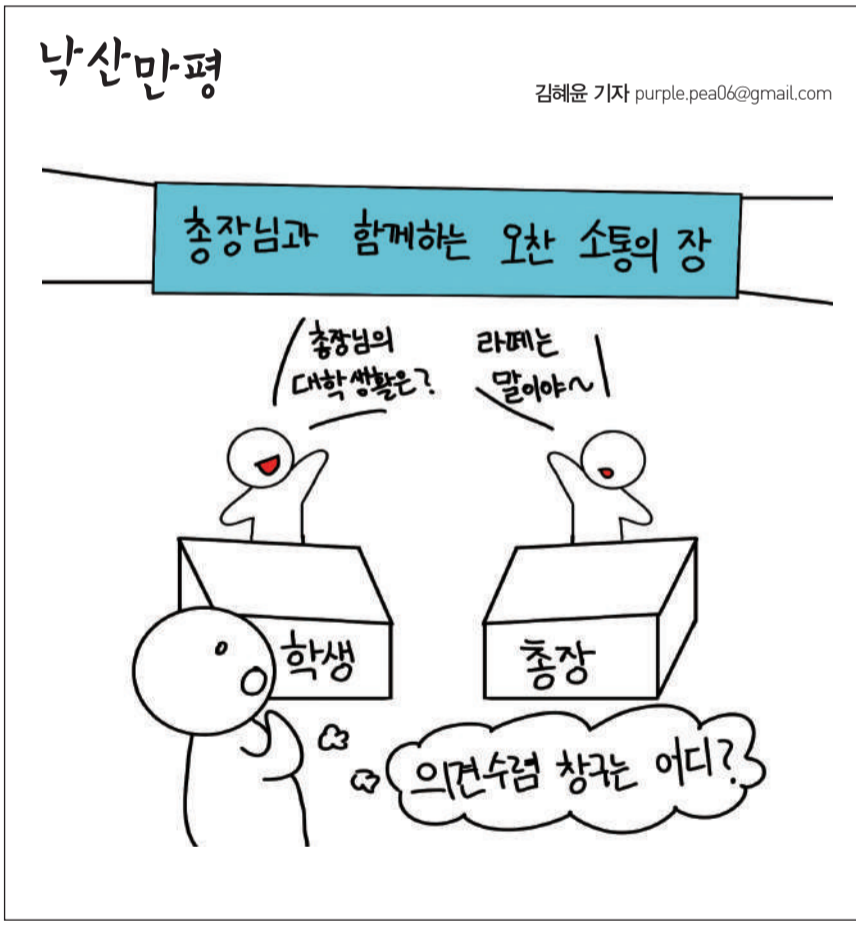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명칭 변경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약 95%를 차지했다. 학생회가 없는 미래플러스대학교와 글로벌인재대학 학생들은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등에 정보를 수수문하며 발을 굴렀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이 본교의 AI 중심 사업 기조에 치중했다는 점이 뼈아픈 지점이다. 본교 자체적으로 AI 융합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자 각 단과대학이 이를 수용하며 빠르게 추진된 것이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대학본부는 학적에 개편 사항을 우선 반영한 뒤 세부 사항을 추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학생이 대학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수 학생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기에

본부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적어도 AI 관련 교과목을 먼저 개설하고 학생들의 반응과 수요를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 방향과 현장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본교는 AI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말한다. 단순히 학생들이 대학의 변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긋기 전 그 '미래'를 선도할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부디 학생이 몸담고 있는 공간인 만큼, 학생들의 의견 역시 대학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함께 담기길 바란다.

김기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낙산에 올라 불금의 '무알콜 나이트'

내 휴대전화는 쉴 틈이 없다. 단톡방, 스팸 메일, 광고 알람이 하루에 수십 개씩 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잔해들은 먼지처럼 쌓여 우리의 집중력을 갇아먹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곤 한다. 그런데 이 먼지들을 털어내기 위해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금요일 밤의 의식이 있다. 바로 '어드민 나이트'다.

이름만 보면 화려한 파티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술잔 대신 마우스를 잡고 클립 음악 대신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이 밤은 마치 행정직(Admin)처럼 자신의 일상을 관리하는 행정 업무 시간이다. 쌓인 메일함을 비우고 무의미한 스크린 캡처를 삭제하며 다음 주 일정을 짜는 이 밤이 우리에게 새로운 나이트 라이프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정리에 집착하는 건 '어드

민 나이트'가 단순한 뒷정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걸 일종의 디지털 디톡스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끊임없이 데이터를 소비하도록 강요받는다. 피드를 넘기고 알람을 확인하고 또 넘기고 이런 흐름 속에서 어드민 나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멈추고 '좋아요' 대신 '삭제' 버튼을 누른다. 그 정적인 시간이 끝날 즈음엔 묘한 감각이 온다. 쾌감이라고 하기에 소박하지만, 해방감이라고 하기에 딱 맞는 감각. 영겨 있던 파일들이 정리되고 수백 개의 읽지 않은 메일이 0이 되는 순간은 웬만한 유희보다 짜릿하다.

대학생의 일주일은 과제나 수업, 알바 때문에 대부분 수동적이다. 정해진 것들을 소화하다 보면 어느새 금요일이다. 그런 일상 속에서 '어드민 나이트'는 좀 다른 결의 시

간이 된다. 누군가 짜준 일정이 아니라 오직 나라는 1인 기업을 내 손으로 재정비하는 시간이자 다음 주의 나에게 미리 건네는 선물 같은 것인 셈이다. 지저분한 테이블을 닦고 나면 괜히 뭔가 하고 꾸미고 싶듯이 디지털 환경도 마찬가지다. 정돈하고 나면 앞으로 달릴 준비가 된 것 같은 가벼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결국 이 시대의 진정한 불타는 금요일은 화려한 클럽 조명 아레가 아니라, 가장 고요한 내 방 노트북 앞에서 완성된다. 숙취 대신 개운함을, 피로 대신 성취감을 선사하는 이 '무알콜 나이트'에 여러분도 접속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주 금요일 밤은 온전히 여러분을 위한 생산적인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철(문론 3)

한성대신문 오피니언면은 학내구성원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의화정 AI 에이전트 시대, 대학도 환경을 바꿔야 한다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사용도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AI를 쓰면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AI를 쓰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학교도 4월부터 AI HUB 서비스를 도입·지원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기술은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가 스스로 활동하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오픈AI의 오피에티나 구글의 안티그래비티, 클로드 코위크 같은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인간을 보조하는 수동적 도구에 그쳤던 AI가 점차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능동적 주체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 프

롬프트 작성법을 숙지하는 것을 넘어, AI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얼마 전 국가AI전략위원회는 공공 문서를 한글 파일에서 마크다운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글의 hwp 형식은 AI가 읽기 어렵기 때문에, AI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준화된 형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렇게 AI 친화적으로 환경을 바꾸면 AI는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우리에게 더 높은 효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학교도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따라갈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에서 오가는 데이터를 가능한 한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준화해야 한다. 텍스트를 불필요하게 이미지로 변환

해 올린다는 건, AI 호환성이 떨어지는 한글 파일에 의존하는 일은 지양하고, 대신 마크다운이나 JSON 같은 형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페이퍼리스 행정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도 단순히 종이 문서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AI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와 형식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API나 MCP를 도입해 AI에게 더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AI 시대를 주도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급속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필자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자 이번 학기부터 강의계획서를 마크다운으로 제공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조재우(사회과학부) 교수

청년의 식사를 부탁해

〈편집자주〉

의식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 중 '식(食)'에 해당하는 먹거리는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와 1인 가구가 안정적으로 식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청년들은 '밥'을 삶의 우선순위에 점차 뒤로 미루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한 듯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체감 가능한 변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청년들은 어쩌다 제대로 된 한 끼조차 고민해야 하는 현실로 내몰리게 됐을까. 이에 본지는 청년 식생활의 현실을 짚어보고, 이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공적 과제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송사무엘 기자 songsamuel24@naver.com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은 점심을 뜻하는 런치(Lunch)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등장한 용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먹거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5년 124.56으로 24.5%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6.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청년층은 고물가와 불안정한 소득 구조 속 식비를 가장 먼저 줄일 수밖에 없다. 자취방이나 고시원 등 조리 환경이 열악한 주거 형태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조리가 어려운 환경은 즉석식품이나 저렴한 배달 음식 소비로 이어지고,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문제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2024년도에 전체 사망의 78.8%를 차지했으며, 영양 불균형 등의 건강 위험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보희(희망 먹거리 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청년층의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만성 질환은 식성, 식습관에 따라 발병하는 질환으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기에 젊은 세대일수록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식생활 위기는 먹거리권(Right to Food)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먹거리권이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공급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제인권규범에서는 먹거리권을 정부가 보장해야 할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식생활 교육지원법』으로 정부가 국민이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먹거리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현행 먹거리 관련 정책이 지역·대학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보편적 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은 수도권 76개교에 비해 강원권 12개교, 충청권 34개교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현(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센터장은 "현재 정부의 파편화된 지원은 보편적 먹거리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의 생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 설계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좁은 원룸이나 공유 주택에 거주하며 조리 시설과 여건이 열악한 청년들에게는 기존의 조리 중심 지원책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2학년 재학 중인 이지수 학생은 "기숙사에 취사실과 같은 요리 장소가 없어 배달음식 위주로 먹게 된다"며 "요리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책이 단순 금전 지원에만 머물러 있어 청년들의 식생활이 편의점이나 가공식품 소비로 치중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식품 바우처 플랫폼에 따르면 전년 10개 군·구의 사용처는 편의점이 약 77%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식비 지원을 받아도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에서 가공식품을 선택하게 돼 부실한 끼니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보희 상임대표는 "식비 지원이 이뤄져도 청년들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실한 식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먹거리 관련 법령의 분산으로 인한 통합적 대응 한계도 심각하다. 현재 51개로 분산돼 있어 국가의 책임과 정책적 방향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먹거리 관련 법령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민영양관리법』 등 개별 법령으로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식생활 위기에 대응할 통합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행 법령들은 생산과 산업의 논리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일명 『먹거리기본법』은 지난 2020년도부터 발의와 논의가 반복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제도화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청년들의 먹거리 권리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보희 상임대표는 "『먹거리 기본법』은 지속 발의돼 왔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대상이 한정적인 원인은 청년 식

생활 관련 정책이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채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시된다. 현재 먹거리 정책은 학생은 교육부, 취약계층은 보건복지부, 식생활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분산돼 각 부처에 맞는 특정 대상으로만 정책을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김상기(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책이 대상별로 분리돼 운영된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 체계가 복잡해지고 사각지대도 발생한다"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젊다는 이유로 제도적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이 과정에서 소외된다"고 말했다.

기존 먹거리 정책이 1인 가구가 급증한 청년 세대보다는 가족 단위 가구나 조리가 가능한 환경만을 전제로 설계된 점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먹거리 부분을 다루지 않는 등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박 센터장은 "먹거리 돌봄이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던 보편적인 가구 모델과 그에 따른 행정적 편의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 사업이 건강한 공급망보다 가맹점 및 유통 구조 중심의 소비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도 악순환을 부추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의 경우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중소 마트는 국산, 수입산을 바코드 단위로 관리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먹거리는 생산과 소비가 순환 구조로 연결돼 있음에도 현재 정책은 단순 소비 지원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먹거리 관련 법령의 분산은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 단계가 서로 다른 부처의 업무 범위에 속한 점에서 기인한다. 먹거리의 경우 유통과 가공, 소비 과정에서 여러 부처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책이 시행됨에 있어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보희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는 영양 기준 중심으로,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유통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협업 체계가 없으면 정책이 각각 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먹거리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관리 책임이나 단기적인 복지 이슈로만 치부하는 인식의 한계가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다. 먹거리 정책이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수준에 머물고, 먹거리를 복지 비용 정도

로만 인식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센터장은 "먹거리 권리를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으로 보지 않는 정책 기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식생활 지원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다. 현재 분산돼 있는 청년 식생활 관련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부처 간 예산과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설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청년 식생활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년의 거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 공유주방 설치 등 1인 가구 청년들이 직접 건강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보희 상임대표는 "주거 환경의 제약 극복할 수 있는 공공 먹거리 인프라가 청년 주거지 인근에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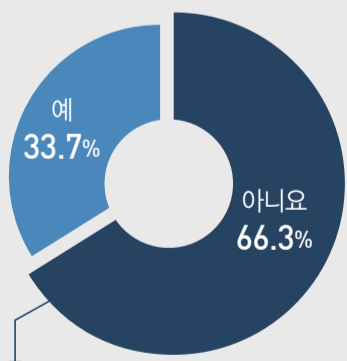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공급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공공 급식이나 직거래 중심의 공급망을 확보해 신선한 식재료로 도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보희 상임대표는 "단순 지원을 넘어 대안적인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먹거리기본법』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다. 분산된 법령을 하나로 묶고 국가의 공공성을 명시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센터장은 "먹거리는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라며 "국가가 이를 보호하는 것은 시혜적 복지를 넘어선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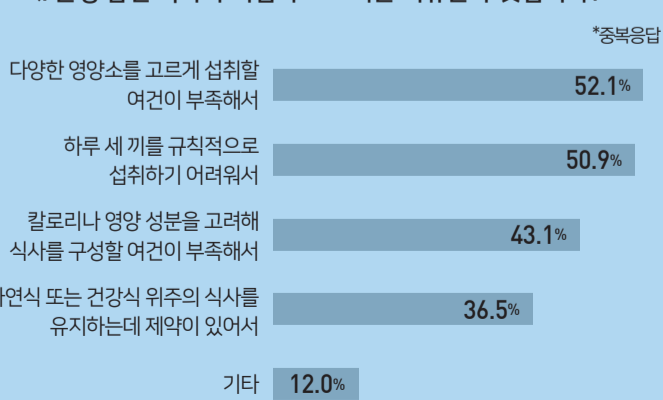
나아가 전문가들은 먹거리를 단순한 소비재나 복지 대상이 아닌 사회권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먹거리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생존과 건강, 노동 능력 유지와 직결되는 기본 조건인 만큼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제언이다. 김 회장은 "먹거리는 단순히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닌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먹거리가 생산-소비-환경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중심에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년 식생활 현황 조사 결과

Q. 현재 자신의 식생활이 균형 잡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설문은 표본은 전국의 청년층(만 19세 이상~34세 이하) 252명입니다.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